

남은 반찬 버젓이...양심 버린 식당들

쌈장에 깎두기까지 다시 사용...불황에 비위생적 업소 증가 먹거리 불신에 시민 건강 위협 속 구청 단속 손길은 못미쳐

인모(40)씨는 최근 광주 삼부지구 렌드 피아 맞은편 B주점을 찾았다가 황당할 일을 겪었다. 안주로 시킨 명태포를 모두 먹은 뒤, 껌질을 구워달라고 했다가 면박을 당했다. 종업원이 껌질과 머리는 다른 손님에게 나누는 국물의 육수를 내는데 사용을 불러 다른 사람이 먹은 명태포 껌질을 재사용하면 되겠느냐고 항의했지만 "깨끗이 씻어 사용하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

회사원 박모(46)씨도 최근 광주시 동구구 시청 인근에 있는 한 포장마차형 식당을 찾았다가 씹쓸을 재활용하는 것을 보고 비위가 크게 상했다고 했다.

박씨는 "식당 아주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른 손님이 먹고 남긴 씹쓸을 손가락으로 긁어서 대형 씹쓸통에 다시 넣더라"면서 "손님이 오자 다시 그 씹쓸을 떠주는 것으로 보고 구토를 할 뻔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김모(47)씨는 광주시 남구 노대동 K식당을 찾았다가 손님들이 먹다 남은 깎두기 국물을 다시 그릇에 담아 끓이는 모습을 보고 그날 식당에서 나왔다고 한다.

올 들어 물가 인상과 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소들이 늘면서 남은 밥이나 반찬, 음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다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들의 잔반 재활용으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나 구청들은 최근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식품접객업소대상 잔반 재사용 및 조리 단속현황은 지난해 서구 3건, 남구 1건, 북구 1건 등 총 5건

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잔반 재사용 실태 등을 조사했지만 행정조치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실적과 달리 잔반 재사용 등의 민원은 매달 1-3건씩 꾸준히 각 자치구에 접수되고 있다.

잔반 재사용 및 조리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영업정지, 3차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영업정지 1일당 12만~740만원)이 부과된다.

저조한 단속 실적에 대해 각 구청은 담당 인력이 1-2명에 불과하고 식당의 잔반 재사용이 의심되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많아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자치구 별로 주부연합회나 일반인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여명을 위촉해 수시로 식당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자치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원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만 증거가 될 수 있는 음식물은 이미 치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진, 동영상 등의 확실한 증거물이 없고 식당의 업주가 발뻠할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음식점 지도 단속에 손을 놓은 자치단체의 직무유기를 지적한다. 김모(50)씨는 "먹을거리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비위생적인 잔반 재활용 문제를 방관하면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되고, 음식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악화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원형이 보존된 상추, 치커리, 깻잎, 쑥갓, 통고추, 통마늘 등은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다. 또 껌질이 벗겨지지 않은 완두콩, 메주리알, 금굴, 방울토마토, 포도, 바나나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노조 투쟁현장에 뜬 '대화경찰관'

코카콜라 광주공장서 첫 선...노사 갈등 조정 나서

코카콜라 농성장에서 대화경찰관을 통한 중재가 부족하다는 광주일보 지적(2018년 10월 11일자)과 관련, 광주 북부경찰이 대화경찰관을 첫 투입했다.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공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소속 노조원들이 운송로 인상을 요구하며 연 결의대회에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대화경찰관을 투입했다.

정보과와 경비과 소속 경찰 총 2명으로 구성된 대화경찰관은 '대화경찰관'이라고 새겨진 형광색 조끼를 입고 노조와 사측, 경찰을 오가며 중재 역할을 맡았다. 대화경찰관은 이날 노조와 충돌을 막기 위해 사측에 배차업무를 잠

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조측 요구에 따라 집회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또 노조측이 마련한 화염퍼포먼스도 대화경찰관의 통제 아래 특별한 마찰과 사고 없이 진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 현장 상황에 따라 대화경찰관을 투입, 충돌을 미연에 막고 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김진희 북부서 정보과장은 "대규모 집회의 경우 경찰과 집회 참여자간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경찰관은 식별이 잘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며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 입장에서 책임감을 더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3살·6살 자매 '위험한 돌 장난' 옥상서 돌 던져 차량 3대 파손

광주광안경찰은 오피스텔 13층 옥상에서 조경용 돌맹이를 던져 차량 3대를 파손한 미취학 아동 A(6)양과 동생 B(3)양 등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양 자매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45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오피스텔 옥상에서 돌맹이 6개를 1층 떨어트리려 BMW와 렉서스, 렉스턴 등 차량 3대의 앞 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양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옥상정원에 올라간 뒤 길이 7cm 가량의 조경용 돌맹이를 옥상 난간 틈에 밀어넣어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떨어진 돌에 의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상에 있던 A양 자매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양 자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어머니에게 형사 책임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새내기 소방관들 실습 교육

1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서 광주소방학교 신입 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들이 소방서 현장 실습을 받고 있다. 새내기 소방관들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동안 선배 소방관들과 함께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을 익힌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캠핑 사고 주의...가열기 일산화탄소 중독 부부 숨져

환절기 캠핑족들의 온열기구 사용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건국동 인근 영산강변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A(63)씨와 아내(56)가 숨져 있는 것을 친척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A씨의 친척은 이를 전부터 연락이

달지 않은 A씨 부부를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 부부는 안에서 잠긴 텐트 안 온수매트 위에 반듯이 누워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부가 누워있던 온수매트는 휴대용 부탄가스로서 물을 데워 매트에 공급하는 구조로, 스위치는 켜져 있었다. 일산화탄소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열기는 텐트 밖으로 꺼내놔야 하지만 A씨 부부는 텐트 안에 가열기를 놔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8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터에 세워진 캠핑카에서 B(82)씨와 두 아들(57·55)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홍희 기자 kimyh@연합뉴스

비정한 母子

빛 시달리던 아들, 어머니와 싸고 아버지 살해 기도

거액의 부채에 시달리던 30대 아들이 어머니와 싸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보혐금을 노리고 어머니 등과 싸고 아버지를 정부 살해하려 한 혐의(준속살해미수 등)로 A(34)씨를 구속했다.

또 A씨 어머니 B(63)씨와 공범 C(43)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공범 D(32)씨는 입건했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아버지(72)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공범들과 지난 6월 22일 경북 울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아버지를 치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살해 시도가 실패하자 B씨는 아들에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보혐금을

타라"고 애기했고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8월 5일 대구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예행 연습까지 한 어머니가 당초 약속했던 차선이 아닌 반대 차선에 서 있는 바람에 범행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전처 치료비 등 3억원에 가까운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요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배송된 택배가 사라졌다...범인은 같은 원룸 세입자

○...20대가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배달물건 보관창고에 있던 다른 세입자의 택배 물건을 가져간 혐의로 경찰서 수사.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7)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원룸 1층 택배창고에 들어가 고모(43)씨에게 배달된 25

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영양제)상자를 들고 갔다는 것.

○...'배송된 택배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창고에 설치된 CCTV 분석을 거쳐 행적이 수상한 같은 원룸 세입자 김씨를 검거했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내 물건으로 착각한 거 가져갔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앱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8타경 7816	1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2층 203	근린시설	38,000,000 중 25,9㎡	38,000,000
	2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3층 305	근린시설	38,000,000 중 25,9㎡	38,000,000
	3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3층 307	근린시설	38,000,000 중 25,9㎡	38,000,000
	4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3층 308	근린시설	57,000,000 중 38,85㎡	57,000,000
	5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4층 401	근린시설	48,000,000 중 30,8㎡	48,000,000
	6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4층 404	근린시설	40,000,000 중 25,9㎡	40,000,000
	7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5층 502	근린시설	40,000,000 중 25,9㎡	40,000,000
	8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5층 505	근린시설	40,000,000 중 25,9㎡	40,000,000
	9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6층 608	근린시설	60,000,000 중 38,85㎡	60,000,000
	10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7층 702	근린시설	40,000,000 중 25,9㎡	40,000,000
	11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7층 704	근린시설	40,000,000 중 25,9㎡	40,000,000
2018타경 9386	1	나주시 우정로72, 7층 716호 [빛가람동, 더클래스]	근린시설	126,400,000 중 104,3㎡	126,400,000
[자동차, 중기]					
2018타경 64529	1	사용면허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선운로 65, 311동 2302호 [선암동, 선운지구리버프라이프 등록번호:20시0470 차량:말리부2.0TURBO 연식:2017]	자동차	24,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봉영정길65-15[대명세안빌]
2018타경 65775	1	사용면허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85-2 등록번호:25두6267 차량:SM5 연식:2014	자동차	9,500,000 9,500,000	보관:광주광산구신정동156[현대]
2018타경 66723	1	사용면허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기동 신가삼호로 12, 301호 등록번호:01무0292 차량:SM6 연식:2016	자동차	23,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신정동156현대주차장
[기타]					
2018타경 327	1	영광군 대미면 송곡리 1041-12 1783.5㎡ 동소 1041-13 3371.7㎡ 동소 1041-14 3371.6㎡ 동소 1041-15 2507.5㎡	광장용지 광장용지 광장용지	1,704,116,000 1,704,116,000	일괄매각, 건축공시중인자강동및홍(매각제외), 제시외결근크리트반덕구조물포함
2018타경 66068	1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779 1091㎡ 동소 779 1381.31, 24㎡ 2층구내식당, 축식실 45.80㎡	담 광장	157,571,160 157,571,160	일괄매각, 제시외기계기구포함, 공장및광업재단차등법제6조특별특조

● 공고된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행히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행행실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표자가 민사소송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 때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 그 공표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일까지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표자 우선 매수신고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8. 10. 30.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11. 6.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비치된 기밀양호에 사전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의 등용 기재와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확정일자는 최고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되는 보증금의 자기납부 또는 현금 증빙하거나 지급보증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 [영광 보증서]을 준비하여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방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개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청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 때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금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금에 한하여 해당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금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중금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대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에서 유예되며, 동시에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양도는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대인도나 기입양을 위해서는 등복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납부한 후 등복제외수입확인서 및 등복제외수입증서 사본 첨부고, 국민우체국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이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체 또는 참가인들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득수익을 얻은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양자보증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이다.

② 매각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입찰방(신청)과에서 전자신청제내내 비치된 출력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결과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에 내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증명을 행위인 위양장을 반드시 첨부하고 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확정되며, 단, 도시지역계획확정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합치 않음에 소멸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음이다.

⑤ 공고된 물건은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 경지할 경우, 또는 매각일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⑥ 신청에 불응하는 물건은 원용의 매각일 때 해당되는 물건이며, 출생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과 공고된 법원내 비치된 매각결과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⑦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방치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⑧ 매각결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법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광매공고 - 매각공고 섹션]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의 열람을 구하는 경우 구권범위를 벗어남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특히 그 용어 사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합치 신청이나 불응, 대금지급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음으로, 관공서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결과와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과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1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신희